

“소화수녀원 완공·오월순례 ‘삼촌 뜻’ 잇겠다”

‘오월 사제’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하남동성당 주임 겸 소화수녀회 지도신부로 발령 자켓값 급등에 공사 중단 “지역민 관심 이어졌으면”

‘오월 사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사진) 신부가 소화수녀회 지도신부로 발령받아 삼촌의 꿈을 이어가게 됐다.

조 신부는 최근 광주 하남동성당 주임 겸 소화수녀회 지도신부로 공식 발령받아 19일 공식 부임했다.

기존에도 조 신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로부터 소화수녀회 지도신부로 구두 발령을 받고 수녀회가 운영 중인 소화자매원 대표이사를 맡는 등 역할을 해 왔으나, 공문을 통해 공식 발령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하남동성당 주임 신부로 발령받은 것도 소화수녀회와 관련이 깊다. 조비오 신부의 마지막 숙원인 ‘소화수녀원’ 건립(광주일보 2021년 4월 15일자 7면)을 마무리짓기 위해 광주시 광산구 삼계동 수녀원 부지와 가까운 하남동성당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신부는 “조비오 신부의 뜻을 이어받아 수녀원을 완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후원자가 줄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던 소화자매원을 정상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녀원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소화자매원에서 생활하는 17명 수녀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수도생활

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화자매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1956년 김준호(레오) 선생이 광주시 북구 화암동에 ‘무등원’을 세우고 나병, 결핵환자, 여성장애인 등을 돌본 것이 시초다. 1977년부터 조비오 신부와 인연을 맺고 지원을 받아 봉선동 부지에 지금의 건물을 세웠다. 1985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인가도 받아 여성정신 장애인 등을 돌보는 데 힘썼다.

이곳 수녀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소화자매원 내 시설에서 지내면서 나병, 결핵환자, 여성장애인 등을 돌보았다. 소화자매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인 시설이라 수녀들은 자비로 임대료를 내 가며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그나마 수용 인원도 10명이 한계라 전주, 완주 등 타 지역까지가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

“이 분들이 70~80대 고령이 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년을 맞은 수녀들은 소화자매원에서 거주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예외조항인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 속해 소화자매원에 간신히 머물 수 있지만, 이 분들을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하게 놓아둘 순 없었죠.”

조 신부는 수녀들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조비오 신부가 출연한



1억원까지 합쳐 수녀원 건립 기금을 마련해 지난 2021년 6월 마침내 수녀원 공사를 시작했다. 수녀원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397㎡다.

당초 수녀원은 지난해 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공정률 90%에서 일시정지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건설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조 신부는 “최근 광주대교구로부터 새로운 공사 총감독을 선임받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조비오 신부의 의지와 수녀들의 피땀 어린 모금 활동, 전국민의 염원이 담긴 수녀원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신부는 소화자매원에 대한 격정도 크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특성상 수녀들 인건비 외 경비는 모두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조비오 신부가 선종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후원금이 3분의 1로마이 낮기 때문이다.

“한 때 1500여명에 달하던 후원자가 최근 5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하는 데도 운영비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신자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오월 신부’ 삼촌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조비오 신부를 기리는 기념사업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으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오월순례길’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는 등 5·18 관련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는 것이다.

“광주 시민들은 다가올 ‘5·18 5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지난 40주년이 ‘준비’ 단계였다면 50주년은 ‘완성’의 단계여야 하죠. 5·18 진상 규명을 통해 그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학술 작업을 이어가며 50주년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광주·전남 21~24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설 연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상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대설·한파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귀성객 등 다수밀집지역에는 구급차량을 전진 배치한다.

교통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교통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가교통정보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133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불편사항은 광주시는 120콜센터와 당직실(062-613-5500-3)로 전남도는 도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성묘·봉안시설,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관리체계를 유지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응급의료기관 69곳과 응급실 운영 신고기관 4곳, 자치구 보건소를 포함한 선별진료소 64곳,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 선별검사소 2곳 등을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을 지정해 진료와 의약품 구입에도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정보는 120콜센터(062-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및 시·도·군 자치구 홈페이지와 보건소, 응급의료포털 ‘E-gen’ (<http://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성·귀경길 꺾은 날씨

광주·전남 22일 눈·비... 24일 대설

설 당일인 22일 광주·전남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등 연휴 내내 흐리다가 연휴 마지막 날 24일 기온이 뚝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 마지막 날인 24일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예보했다.

귀성길이 시작되는 20~21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겠다.

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적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많은 눈과 함께 울겨올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 올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뱃길과 하늘길을 이용한 귀성·귀경길에는 미리 교통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귀성이 시작되는 20일에는 새벽에서 아침 사이 서해남부 모든 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물결이 1.5~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고 20일 오후에서 밤사이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길이 시작되는 23일 오후부터 25일 까지, 바람은 시속 35~60km로 불어 강풍특보도 발효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을 앞둔 19일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복주머니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광주·전남 5년 간 32% 발생

광주·전남지역에서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연휴 시작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총 10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 올해처럼 연휴기간이 4일로 같았던 최근

4년(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의 경우 연휴 시작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5일 동안 총 7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휴 전날이 244건(32%)로 가장 많았고, 연휴 첫째 날이 163건(21%), 셋째 날 127건(16%), 넷째 날 118건(15%), 둘째 날 101건(13%) 순이었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소찰대 등은 20일 곡성 휴게소에서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천홍희 기자 strong@

설 명절 과대포장 단속

환경공단 29일까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광주·전남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포장 횡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

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포장횡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을 점검한다.

또 과대포장 합동점검 시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대해서 ▲분리배출표시, ▲표시크기 등의 기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며,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062-412-6183

상담문의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